

표류 컨테이너에 백색가루 2포대 혹시 마약?...국과수에 조사 의뢰

이거 혹시 마약 아니야?
여수해경에 따르면 11일 '완하이' 호에서 떨어진 40피트 컨테이너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20kg들이 백색가루 2포대를 발견, 여수세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세관은 이 가루가 마약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즉시 1차 성분분석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세관 분석실 등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차 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마약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날 해안가에 떠밀려온 컨테이너에는 초코파이·호떡용 가루·성인 의류 및 신발·가공용 밤·필프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조교는 대학교원 아니다”

법원, 광주 J대 재임용 탈락자 청구 각하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1일 광주 J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48)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교육부가 제정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내세워 재임용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법 어느 조항에도 ‘대학 교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제정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을 통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점으로 미뤄 특별법의 목적과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조교는 특별법의 심사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 “군 입대후 정신질환...국가유공자”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1일 이모(33)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 비례당첨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병검사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해 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참들의 구타와 성적 가혹행위 등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군 복무중 구타 또는 성적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례당첨 결정을 한 광주지방보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 바닷길 충돌사고 ‘비상’

태풍에 컨테이너 111개 빠져...9개 인양·16개 위치 확인·86개는 못찾아

해경, 전량 인양 전까지 ‘항해경보’

여수 바닷길에 충돌사고 비상이 걸렸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로 인해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을 향해 중이던 화물선에서 10일 오전 컨테이너 111개가 바다에 빠지면서 선박 안전에 큰 위협요소로 등장했다.
〈본보 7월 11일자 1면〉
당시 이곳 해상에서는 ▲중국 텐진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싱가포르 선적 ‘이슬린 티안진’(1만649t급·EASLINE

TIANJIN) 호에서 20피트 및 40피트 컨테이너 100개 ▲인천항에서 광양으로 항해하던 싱가포르 선적 ‘완하이 213’(1만7천t급·WANHAD) 호에 실려있던 40피트 컨테이너 11개가 강풍과 파도에 휩쓸렸다.
여수 해양경찰은 태풍이 지나간 11일 오전 8시부터 헬리콥터와 100t급 이상 경비정 8척 등을 띄워 컨테이너 수색작업에 나서 남면 우왕리 학동마을 해안가에 밀려온 9개 등 모두 25개를 발견했다.

해경은 그러나 바다에 떠다니는 16개 컨테이너에는 부표를 띄우는 등 위치표시만 했다. 선박회사 측에서도 예인선 3대를 띄웠지만, 본격적인 인양작업은 선주·보험회사 등의 협의가 끝난 뒤에야 가능해 손을 못대고 있다. 나머지 컨테이너 86개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컨테이너를 전량 인양하기 전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항해경보’를 발령했다. 해상교통방송·어업정보통신국 등도 이곳을 지나는 선박에 “운항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소리도 해상은 부산·광양·여

수항을 이용하는 ▲300t급 이상 상선 50여 척 ▲5t급 이상 어선 200여 척이 매일 드나드는 길목으로, 해상 충돌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미확인 컨테이너 수가 많아 완전 수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수 어업무선국 관계자는 “곧 파도가 찾아지면 어선들이 바다로 나갈 것”이라며 “사고 위험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떠다니는 암초’ 컨테이너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 떠다니는 컨테이너. 이곳 바닷길에는 태풍 영향으로 컨테이너 111개가 물에 빠졌지만, 완전 인양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난사고의 위험이 크다.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 떠다니는 컨테이너. 이곳 바닷길에는 태풍 영향으로 컨테이너 111개가 물에 빠졌지만, 완전 인양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난사고의 위험이 크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 컨테이너 상식 비상시 물에 뜨게 설계

컨테이너는 비상시에 대비, 철로 만들었더라도 물에 뜨게 설계돼 있다.
보통 20피트(ft), 40피트가 주로 쓰인다. 20피트짜리는 ▲길이 6m ▲폭 2.4m ▲높이 2.6m이고, 40피트는 20피트짜리보다 길이만 2배 길다. 재질은 철재·알루미늄·FRP 복합물 등이다.
차이는 있지만, 빈 컨테이너의 무게는 20피트가 2t, 40피트는 4t 정도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에는 ▲20피트는 최대 20.32t ▲40피트는 30.48t까지 적재할 수 있다.
한국은 연간 45만 TEU(20피트)를 수출, 전 세계 물량의 7%(세계 6위)를 차지한다.

■ 컨테이너 왜 바다에 빠졌나?

강풍에 강철 연결고리 끊어졌다는데...

컨테이너는 어떻게, 왜 바다에 빠졌을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1만6천t급 선박의 경우, 20피트를 기준 700~1천500개를 운송할 수 있다. 40피트는 절반인 350~750개가 한계다. 높이 기준은 없다.
여수해경 조사결과 ‘티안진’호는 사고 당시 580개를, ‘완하이 213’호는 699개의 컨테이너를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이다.

컨테이너 모서리 4곳에는 홈(귀퉁이·corner fitting)이 파져있어 배와 연결된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각 단 사이에는 어른 주먹 4~5개 정도 크기의 ‘트위스트락’(twist lock) 혹은 ‘콘’(cone)을 끼워 고정한다. 옆면에는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용 쇠붙이’(lashing fitting)를 ‘X’자 모양으로 덧붙인다.
광양에 있는 컨테이너 고정 전문회사 ‘남양항운’ 윤찬근(37) 차장은 “출항을 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2~3층으

로 고정을 하지만 태풍이나 강한 파도를 만나면 연결하는 부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튕겨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리도 인근에는 초속 25m의 강풍이 불었고, 파도는 4~5m로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폭풍속 항해를 밥먹듯 하는 컨테이너 선박에서 연결고리가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연제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만 353부
문의 (062)366-4220

광양 조난 등산객 8명 구조

11일 오후 1시11분께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형제봉을 내려오던 산악회 회원 8명이 전날 많은 비로 조난당했다가 오후 3시30분께 119 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전과기록 허위기재한 기초의원 고발

○광주시 선관위는 11일 5·31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광산구 기초의원 A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 기록란에 ‘5·16군사혁명 직후 고참의 지시로 모포 1장을 모찌며 36개와 바퀴 준 것을 특수절도라 하여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그 후 군복무 중 임진강에서 간첩을 사살하여 무공훈장을 받아 사면됐음’이라고 해명.
○A의원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과 사면된 적이 없으며, 미제 모포 1매와 차량 공구인 렌지 1개를 출처 군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최진민기자 man21@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세기의 첨단보청기 기술의 정수입니다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